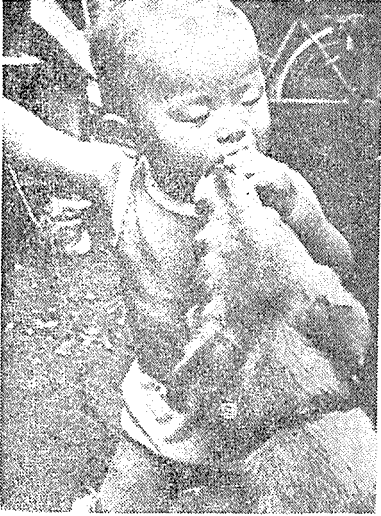


## 애견에서 옮는 무서운 회충



<개가 어린이에게 기생충을 옮기고있다>

최근 개의 회충이 사람에게 무서운 존재임을 알게되었다. 이 회충이 기생(寄生) 하는 기간은 생후(生後) 반년 이내의 강아지 때뿐이고 성견(成犬)이 되면 기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반(胎盤)을 통해서 어미개로부터 새끼에 옮겨지는 수가 있다. 인체에 옮으면 0.5밀리미터 정도의 유충(幼虫)이 되며, 그 이상 커지지는 않는다.

유충 그 자체에는 병원성(病原性)이 없지만, 장벽(腸壁)을 뚫고 나오면

장기(臟器)에 상처를 입혀 장애(障害)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간장(肝臟)으로 들어가면, 미열(微熱)이 계속되면서, 간장이 부어오른다. 뇌에 침입(侵入)하면 뇌 장애를 일으키며, 시신경(視神經)을 다치면 실명(失明)하게 된다.

개의 회충은 매우 작아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에는 면역반응(免疫反應)에 의해서 개의 회충이 인체내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 예방으로는 강아지 때에 회충을 구제(驅除)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검변(檢便)을 할 때에는 엄지손가락 정도의 변을 수의(獸醫)에게 보이던 된다. 회충이 발견 되면 약을 먹여야 한다. 개의 기생충에는 회충 이외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충약도 다르게 마련이다.

상식적인 요법보다는 수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또한 변의 뒷처리도 중요하다. 회충란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땅을 깊이 파고 묻어버린다. 산책(散策)에 데리고 갈 때는 신문지를 준비했다가 변을 싸 가지고 돌아와서 뒷처리를 하는 것이 적어도 애견가로서의 필요한 태도라고 하겠다.

집안에서 기를 경우에 그 개가 애완용(愛玩用)이라 하더라도, 잠자리를 사람과 딴 장소에 마련해 주어서 어릴때부터 버릇을 가르쳐주는 것이 개의 성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고양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다.

<건강코너>

## 정상 체온은 얼마인가?

오전 2~6시 36도 2분

오후 5~8시 36도 8분

사람의 체온은 흔히들 일정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체온은 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체온은 몸의 부위에 따라 각각 다르다.

따라서 체온을 잴때는 이같은 수치의 차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루중 체온이 가장 높을때는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이다. 이때는 대략 36도 8분을 나타낸다. 체온이 가장 떨어지는 때는 오전 2시에서 6시 사이로 36도 2분을 나타낸다. 체온은 하루에 약 6분 정도의 차를 갖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체온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젊은 사람은 노인에 비해 약간 체온이 높고, 살이찌고 활동적인 사람은 마른사람보다 역시 약간 체온이 높다.

또한 운동을 하면 체온은 크게 흔들린다.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서 혈액을 타고 옮겨온 포도당이 산화하며 내는 열이 급격히 체온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운동을 하고난 다음 체온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40도까지 치솟기도 한다. 이 경우 30분정도 휴식을 취하면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 간다.

그런가하면 체온은 신체의 부위에 따라 차가 있다. (아래의 표 참조)

그리고 체온은 높이에 따라 37도 정도를 미열, 39도이상을 고열이라 한다. 대사작용이 왕성한 어린이의 경우 39도 이상이 되면 경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곧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도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생명에 큰 위협을 준다.

정 상 체 온

측정 부위	온도(섭씨)
겨드랑이및 서혜부	36.0~37.0
입안	37.0~37.2
직장 및 질내	37.5
질피부	29.0~33.2
귀뿌리	22.0~24.0
혈액	38.9
간장 및 근육(운동중)	39.0~40.0